

# 웃음 주는 목포 '웃음택시'

### 10~11월 택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 1,225명 참여 좋은 평가 받은 웃음택시 내년에 20대 추가



목포 친절브랜드택시 '웃음택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웃음택시는 목포시가 택시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택시 종사자 45명을 선발해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만의 고유 친절브랜드 택시이다.

시가 지난 10~11월 실시한 택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택시에 비해 친절브랜드를 단 '웃음택시'의 서비스가 더 만족스럽다는 답변이 70%였다. 이번 조사에는 시민과 택시업계 종사자 1,225명이 참여했으며, 서비스 만족도, 불만족 사유, 웃음택시에 대한 반응, 택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 대

면설문과 시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을 병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목포시가 올해 처음 운영 중인 웃음택시가 일반택시 보다 서비스가 우수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 70%, '그렇지 않다' 30%로 시민 만족도가 높았으며, 더 우수하다고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친절한 태도' 51%, '차량 청결상태' 26%로 집계 되었다.

시는 웃음택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만큼, 내년에 도 20대를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택시서비스 만족도는 '만족한다' 30%, '보통이다' 43%, '불만족한다' 27%로 불만족 보다는 만족한다는 답변이 약간 더 많았다.

가장 중요한 택시 이미지 개선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친절교육' 40%, '운수종사자 자율개선 의지' 25%를 꼽아 행정처분 등을 통한 개선보다는 지속적인 교육과 종사자 및 업계의 개선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목포=박정수 기자

## 강진군, 다산의 가르침으로 지역 경제 효자 노릇 톡톡

올해 5천여 명 교육생, 9억6천여만 원의 교육비 수입



올 한해 강진군 다산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청렴교육이 약 90회 동안, 5천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공무원 청렴푸스체합교육 등 4개 과정으로 9억6천여만 원의 교육비 수입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교육 종료 후 운영되는 다산 농부장터도 5천여만 원의 농산물 판매 소득을 올려 농가 소득을 창출했다.

강진군 다산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청렴교육은 다산초당과 사의

재, 다산박물관 등의 현장탐방과 청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한데 얹어 청렴교육의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는 등 전국적인 청렴 대표 중심으로 성장했다.

다산청렴교육이 입소문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공무원들이 강진을 찾았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4만3천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그간의 교육비 수입 또한 64억 원에 이른다.

교육생이 내는 교육비는 고스란히 강진군민에게 돌아간다. 푸스체합과 교육을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농가 부수입을 창출하고, 관내 식당이용, 특산품판매점 이용을 비롯해 각종 쇼핑으로 이어지는 소비활동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다산청렴교육은 전남 공무원 교육원 부지 편입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적 여건에도 교육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성선 교통연수원 등 타 시설을 입차하며 교육을 진행하였다.

내년부터는 사의재 뒤편에 자리하는 다산청렴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며 2021년부터 개원될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까지 함께하면 강진이 전국을 대표하는 공직자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내년 교육은 기존 교육에 연령별 과정을 신설해 7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2020년 2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에 따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다산박물관 교육홍보팀(☎061-430-36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 정중순 장흥군수, 출입기자 송년간담회 가져

정중순 장흥군수가 지역 언론인을 초청해 '2019년 주재기자 송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는 지역 언론인 30여명이 참석했다.

자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 간담회는 각종 군정 현안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중순 군수는 "군민의 눈과 귀인 언론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정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고자 한다."며, "지역 현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나누길 바란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날 참석 언론인들은 지역 인 구늘리기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 먼저 질문을 남겼다.

정 군수는 "도시민 유치를 위

해 도시민타운을 검토하고 있다."며, "남도대학을 군에 편입시켜 귀농사관학교를 세우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젊은 부부 유치를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확보와 관련해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소방의 메카, 국가위인공원 조성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궤도에 올르면 좋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중순 군수는 "미르체아파트에서 장흥중학교 사이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외곽으로 순환할 수 있는 4차선 도로 공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임시주차장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목공 전시 판매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 군수는 "75억원 규모의 농촌테마파크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환경 개선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드랜드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솔길을 더 만들고 속도도 우드랜드 안보다는 밖에 지어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중순 군수는 "언론인과 군민들이 주신 좋은 의견은 군정 운영에 반드시 나갈 것"이라며, "새해에도 군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위지훈 기자

## 농어촌공 영암지사, 2020년 신규사업 선정

신북지구 농촌용수 체계제편 · 구산지구 배수개선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2020년 정부예산 국회심의결과 신북 농촌용수체계제편사업은 기본조사지구로 구산배수개선사업은 신규 착수지구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촌용수 체계제편 대상지구로 선정된 신북지구(영암군 신북면, 시종면 일원 1900ha(총사업비 490억원))는 나주호 용수로 말단부에

위치하여 해마다 상습적인 용수공급의 제약이 있었던 지역으로 영산강을 통한 추가 용수공급을 위하여 양수장 2개소, 송수관로 12.1km등의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구산지구(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일원 574ha(총사업비 116억원))는 영산강 지류인 삼포천에 위치하여 홍수가 농경지의 내수위보다 높아 자연배제가 불가능하여 매년 침수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공사는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 배수장 1개소, 배수문 3개소, 배수로 6.7km 설치 예정이다.

최오남 영암지사장은 "서삼척 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습 기물 및 침수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진도군, 2020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진도군이 최근 지산면 소포리 다목적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목적과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알렸다.

군은 지산면 소포리 123번지 일원(652필지/164,373㎡)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등의 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